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유통'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업계 1세대 기업인 김정문알로에가 방문판매라는 생활밀착형 유통방식 노하우에 새로 전문점과 온라인몰의 특성을 접목해 선보인 헬스&뷰티 전문점 'THE HB'의 서초직영점 외관(맨 왼쪽 사진)과 내부 사진(가운데, 오른쪽) | 김정문알로에

전기식, 이제 유통도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문판매 노하우에 온라인몰 결합 모든 제품 접할 수 있는 쇼룸 기능도 2030 겨냥 트렌디한 패키지 눈길 매장 전용 '알랩서 유산균 제품 출시



김정문알로에가 'THE HB' 전용 유산균 브랜드로 론칭한 알랩서 첫 제품, '알랩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이하 전기식)은 코로나 19 사태를 맞으면서 급성장하는 분야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트렌드에 힘입어 최근 2년간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기식 판매액은 지난해 3조 3000억 원을 넘었다.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식은 전통적인 방문판매, 콜센터를 통한 영업 외에 온라인몰이나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플랫폼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대면 오프라인 영업과 온라인 마켓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유통'이라는 새로운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방문판매 장점에 온라인몰 접목

자연문화 건강기업을 표방하는 김정문알로에(대표 최연매)는 1975년부터 문을 연 우리나라 전기식의 1세대 기업이라 할 수 있다. 40년 넘게 알로에를 중심으로 한 전기식에 주력해 온 김정문알로에는 최근 헬스&뷰티 전문점 'THE HB'를 론칭했다. 현재 매장을 공격적으

로 늘리고 있는데 론칭 2개월여 만에 40개 매장이 오픈했고, 연말까지 1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E HB'는 김정문알로에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방문판매라는 생활밀착형 유통방식 노하우에 새로 전문점과 온라인몰의 특성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이곳은 기존 방문판매에서만 취급하던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기 외에 온라인 큐어몰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등 김정문알로에의 모든 제품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룸과 오프라인 매장의 기능을 갖고 있다. 'THE HB'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기존 방문판매 소비자보다 젊은 연령대의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외에 트렌디하고 간편한

패키지의 제품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까지는 다른 전기식 기업에서도 최근 도입해 운영하는 오프라인 점포와 비슷하다. 하지만 'THE HB'는 여기에 매장 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고객밀착형 상담과 케어 그리고 온라인몰 회원 가입 등의 커뮤니티 기능을 갖추고 있다.

김정문알로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의 장점인 방문판매 역량이 온라인과 홀쇼핑 등 다양한 유통망을 결합해 방판과 시판이 동시에 가능한 매장을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THE HB'의 점주는 매장을 방문한 고객 외에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적 판매도 할 수 있다. 특히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자신의 권유로 온라인몰에 가입하면 이후 그 고객이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금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일종의 온라인 고객 영업을 오프라인 전문점의 점주가 담당하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 이력 전문점을 통해 온라인몰의 패밀리 회원으로 가입하면 할인쿠폰, 적립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판매자인 카운셀러 제도를 통해 부가적인 수입 창출 기회도 제공한다.

●매장 전용 유산균 브랜드도 론칭

김정문알로에는 매장 오픈에 이어 'T

HE HB' 전용 유산균 브랜드 '알랩'도 론칭하고 첫 제품인 '알랩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유산균과 아연, 셀레늄 등을 함유해 3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다. 유산균에 알로에를 배양시킨 유산균 배양 건조물인 알로에 아보레센스 포스트바이오틱스와 알로에 겔 포스트바이오틱스 등을 함유했다. 천연물 연구에 강점이 있는 회사 특성을 살린 제품이다.

김정문알로에는 알랩 브랜드를 통해 알로에와 유산균을 접목해 개발한 제품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THE HB'에서 앞으로 모바일 검사 등 개인 체질을 검사해 그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과 개별 전기식 제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랜 역사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다소 올드한 느낌으로 인식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10월 들어 신제품 큐어크리스의 지상과 광고도 시작했다.

김정문알로에 관계자는 "THE HB를 통해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공략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헬스&뷰티 매장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며 "2022년까지 300개의 THE HB 매장을 오픈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서경목 중앙대병원 교수, '젊어지는 골프' 출간

골프 마니아이자 골프의학 전문가의 '골프로 젊게 사는 법'



서경목 교수

골프 마니아이자 골프의 학 전문가인 중앙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서경목 교수가 '젊어지는 골프'를 발간했다. 서경목 교수는 국내 최초로 골프의학을 도입한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대한골프의학회장이다. 서 교수는

3000명이 넘는 '골프 부상' 환자를 진료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골퍼들이 잘못된 연습과 스윙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사례를 곁들여 설명한다. 골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천법과 연습장에서



다치지 않고 연습하는 방법, 영양학자의 이론을 토대로 한 골퍼의 식사법 10계명, 골프로 필요한 근력을 키우는 스트레칭 방법 등도 소개했다.

서 교수는 "많은 골퍼들이 부상 위험을 과소평가하지만, 골프는 만성통증은 기본이고 근육과 힘줄, 인대 부상을 빈번히 초래하는 스포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비대면 키오스크 추가 설치 고려대 안산병원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최신형 비대면 키오스크를 17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병원은 이제 총 36대의 비대면 키오스크를 통해 내원객들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진료비수납, 영수증 재발행,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행, 처방전 발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향후 키오스크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제증명 범위를 확대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래검사사실 확인서 등도 비대면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28일 (목) 음력: 9월 2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드,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력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천 초목에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 것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 로 충족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 이 갈할 때마다. 검소하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 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 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 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 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 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 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우므로 특히 대 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 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 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고강한 행동을 따라야 하며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것 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날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르나.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비타믹스, '뉴트리미 에센셜 팩 큐브' 선보



비타믹스는 개인맞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미를 통해 1포에 필수 영양을 모아 담은 '에센셜 팩 큐브'(사진)를 출시한다. 한국인 대상 개인맞춤영양 사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일 1포로 간편하게 섭취하도록 구성했다. 15일분의 국내 초소형 오메가-3 캡슐을 포함한 20종의 영양기능성분이 담긴 올인원 멀티 영양제다. 12종의 비타민, 5종의 미네랄, rTG오메가-3(DHA+EPA),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코엔자임Q10으로 구성했다. 비타믹스의 뉴트리미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건강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오십견, 정형외과 도수치료로 개선 가능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면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오십견이 있다. 주로 노화가 원인이 되는 50대에 많이 발병한다고 '오십견'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나 최근에는 30~40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통증이 있어도 무조건 일상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일상 생활은 대부분 가능하다.

하지만 오십견으로 인한 통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어깨 근육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 어깨가 굳으면 통증은 사라지지만 탈이나 세수 등 기본적인 일상 행동조차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십견은 진행 정도에 따라 어깨는 움직일 수 있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 1기, 통증이 사라지면서 어깨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2기, 굳어진 것이 만성이 되어 어깨를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게 3기이다. 오십견이 의심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2기가 되면 통증이 사라져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다 어깨가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오십견의 90%는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관절 강직이 심하거나 힘줄 손상이 동반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에는 주사치료와 도수치료 등이 있다. 주사치료는 PDRN(DNA주사), 증식치료 등의 처치를 시행하며, 관절과 힘줄의 염증을 호전시켜 관절 범위를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오십견 치료는 어깨관절 스트레칭이 중요하며, 전문적인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관절 이완과 어깨 근육 균형을 잡아주는 도수치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

상무지구 서울상무정형외과 최성우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28일(목)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7 20	9 18	4 20
강릉 0/0	대전 0/0	전주 0/20	10 20	6 20	6 20
광주 0/20	대구 0/0	부산 0/0	8 21	7 21	11 21
창원 0/0	제주 20/20	지역	9 21	13 19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9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